

## 온정적/통제적 양육행동, TV 시청 시간, 유아의 정서 및 행동 문제 간의 구조적 관계\*

김수정<sup>1)</sup> 정익중<sup>2)</sup>

###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온정적/통제적 양육행동, TV(DVD/Video) 시청 시간, 정서 및 행동 문제 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패널조사 5~6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만 4세 1,703명, 만 5세 1,662명의 유아와 가족 자료를 구조방정식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만 4세 시기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증가할수록 TV 시청 시간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통제적 양육행동은 TV 시청 시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둘째, 만 4세 시기의 TV 시청 시간은 만 5세 시기의 유아의 공격성과 주의문제를 유의하게 증가시켰지만 우울·불안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유아의 TV 시청 시간을 줄이기 위해 통제적 양육 행동이 아닌 온정적 양육 행동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유아의 정서 및 행동 문제 예방을 위해서는 TV 시청 시간을 감소시키도록 해야 하고, 공격성과 주의문제를 보이는 아동을 표적대상으로 한 TV 시청에 관한 집중적인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온정적/통제적 양육행동, TV 시청 시간, 우울·불안, 주의문제, 공격성, 한국아동패널

## I. 서론

최근 미디어는 유아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다양한 미디어 중에서 특히 TV는 예전부터 가정 내에서 다른 미디어에 비해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영상

\* 본 연구는 2016년 한국아동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발표를 하였음.

1)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후연구원

2)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매체 중의 하나로서 주로 놀이나 교육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되고 있기에 유아들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유아의 미디어 사용 실태와 관련하여 최근 서울과 경기도 영유아의 주양육자 1,000명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영유아 전체의 83%가 0~1세 시기에 TV 시청을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나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비해 가장 빨리 TV에 노출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이정림·도남화·오유정, 2013). 영유아의 매일 미디어 매체 이용 빈도도 TV 시청이 56.9%로 가장 높았으며, 컴퓨터 이용이 6.0%, 스마트폰 이용이 14.8%로 나타나 미디어 중 TV에 노출되는 빈도가 압도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조안나와 고영자(2013)는 경기도 부천시의 만 4~5세 유아 부모 330명을 조사하였는데 TV, 비디오, 컴퓨터, 게임기, 휴대폰 중에서 가정 내에서 사용 시간이 평균적으로 TV가 24분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 순으로 비디오가 21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주 어린 시기부터 영유아는 환경적으로 TV에 노출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부모들의 인식과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주로 화면과 소리로 이뤄지는 TV나 비디오 등은 주로 성장기 때 장시간 시청하게 되면 뇌 구조의 손상을 초래하며 비만, 수면 문제, 낮은 학업 성취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Cain, & Gradisar, 2010; Takeuchi et al., 2013; Pagani, Fitzpatrick, Barnett, & Dubow, 2010; Zimmerman, & Christakis, 2005). 특히 과도한 TV나 비디오 시청은 프로그램 내용과 상관없이 아동과 청소년의 우울·불안과 같은 내면화 문제와 공격성, 주의문제 등의 외현화 문제와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ristakis, Zimmerman, DiGiuseppe, & McCarty, 2004; Singer, Flannery, Guo, Miller, & Leibbrandt, 2004; Singer, Slovak, Frierson, & York, 1998; Swing, Gentile, Anderson, & Walsh, 2010; Wilson, 2008).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학령기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고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정서 및 행동 문제는 다양한 장애의 위험요인일 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적응에 있어서 중요한 지표가 되는데 이러한 문제는 이른 유아기부터 나타나 성장하면서 지속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어린 영유아를 대상으로 TV 시청이 정서 및 행동 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지금까지 영유아를 대상으로 수행된 TV 시청과 정서 및 행동 문제 간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터키의 5~6세 유아 126명을 조사한 Gülay (2011)의 연구에서는 TV 시청 시간의 증가는 유아의 공격성, 불안, 과잉행동-주의산만, 비사회적 행동 등의 유의미한 예측요인임을 입증하였다. 영국의 유아 10,500명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성별과 연령을 통제한 상태에서 5세 시기에 3시간 이상의 TV/Video/DVD 시청은 7세 시기 유아의 품행 문제, 정서적 징후, 과잉행동/부주의, 또래 관계 문제 등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Parkes, Sweeting, Wight, & Henderson, 2013). 네덜란드의 영유아 3,913명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TV 노출은 주의문제나 공격성을 포함한 외현화 문제의 유병률이나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Verlinden et al., 2012). 미국의 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Youth 자료를 사용한 연구에서는 1세와 3세 시기의 TV 시청 시간이 7세 시기 주의문제의 예측요인임을 입증하였다(Christakis et al., 2004). TV 노출 시기에 따른 차별적 영향을 조사한 Mistry, Minkovitz, Strobino, BorZekowski(2007)의 연구에서는 미국의 유아 2,072명을 조사하였는데 30~33개월 시기와 5.5세 시기 모두 2시간 이상의 TV시청을 한 유아와 5.5세 시기에만 2시간 이상의 TV 시청을 한 유아는 5.5세 시기의 우울·불안, 공격성, 주의문제의 증가에 유의한 관계를 나타냈다. 하지만 30~33개월 시기에만 2시간 이상의 TV 시청을 한 유아의 경우 5.5세 시기의 우울·불안, 공격성, 주의문제와 유의한 관계를 입증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지속적 TV 시청이나 능동적으로 TV를 선택할 수 있는 나이에 더 부정적인 연구결과는 지속적으로 TV 시청이 이루어졌는지, TV 시청을 피동적으로 선택하는지, 능동적으로 선택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라고 판단된다. 일본의 영아 302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18개월 시기의 TV 시청 시간은 30개월 시기의 주의문제와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Cheng, Maeda, Yoichi, Yamagata, Tomiwa, & Japan Children's Study Group, 2010). TV 프로그램의 내용이 정서 및 행동 문제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조사한 미국의 Zimmerman과 Christakis(2007)의 연구에서는 만 3세 이전에 폭력적이거나 비폭력적인 오락 내용의 TV 시청이 4~5세 시기의 주의문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폭력적 내용의 TV 시청이 유아의 언어적 공격성을 증가시켰고, TV나 비디오, 컴퓨터를 사용하여 교육적인 내용을 시청한 경우 시간이 흐른 뒤에 관계적 공격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Ostrov, Gentile, & Crick, 2007; Ostrov, Gentile, & Mullins, 2013). 이처럼 여러 연구들을 통해 유아의 TV 시청은 장·단기적으로 정서 및 행동 문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유아의 TV 시청과 정서 및 행동 문제와의 영향 관계는 그 결과가 일관되지 않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의 4~8세 유아 338명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TV/DVD 시청 시간은 유아의 우울·불안, 분노, 주의문제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Rosen, Lim, Felt, Carrier, Cheever, & Lara-Ruiz, 2014). 성별과 연령만을 통제한 결과와 달리 아동 특성, 부모 특성, 가구 특성 등의 다양한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Parkes 외(2013)의 연구에서는 5세 시기에 3시간 이상의 TV/Video/DVD 시청이 7세 시기의 정서적 징후, 과잉행동/부주의, 또래 관계 문제 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네덜란드의 영유아를 조사한 연구에서도 24개월 영아의 TV 시청 시간이나 프로그램 내용은 36개월 시기의 주의문제나 공격성을 포함한 외현화 문제에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Verlinden et al., 2012). 미국의 Early Childhood Longitudinal Study-Kindergarten(ECLS-K) 자료의 경우에도 전국적으로 대표적인 표본을 사용하였는데 유치원 시기의 TV 시청 시간이 초등학교 시기의 주의력결핍과잉행동 증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Stevens, & Mulsow, 2006). TV 시청의 내용적인 측면을 조사한 Zimmerman과 Christakis(2007)의 연구에서도 만 3세 이전의 교육적 내용의 TV 시청이나 프로그램의 내용과 상관없이 4~5세 시기의 TV 시청은 주의 문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Ostrov 외(2007)의 연구에서는 교육적 내용의 TV 시청이 오히려 신체적 공격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TV 시청과 정서 및 행동 문제와의 관계가 노출 시기나 시청 내용을 고려했을 때 일관되지 않게 차별적인 영향 관계가 나타나므로 우리나라 유아를 대상으로 TV 시청과 정서 및 행동 문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유아의 TV 시청 시간의 증가로 인한 정서 및 행동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부모의 개입이 필요하며 부모의 개입 요인으로 부모의 양육 행동이 유아의 TV 시청 시간의 증가 및 감소와 연관이 있다. 부모 양육 행동은 Baumrind(1991)의 이론에 의하면 크게 부모의 지지, 애정, 반응성을 의미하는 온정적 양육 행동과 감독, 훈육 등을 의미하는 통제적 양육 행동의 두 축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최근 선행 연구에서는 온정적 양육 행동과 통제적 양육 행동이 TV 시청 시간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arr-Anderson et al., 2011; Johnson et al., 2015). 미국의 2~5세 유아 201명을 조사한 한 연구에서는 부모의 온정과 통제 수준이 모두 높은 권위적(authoritative) 양육 행동의 증가는 TV 시청 시간을 포함한 여러 미디어 시청 시간 감소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Schary, Cardinal, & Loprinzi, 2012).

부모의 온정과 통제 수준이 모두 높은 경우가 유아의 TV 시청 시간의 감소에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도 있지만 그 결과는 아직까지 일관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영국의 10~11세 아동 431명을 조사한 Jago, Davison, Thompson, Page, Brockman와

Fox(2011)의 연구에서는 권위적(높은 통제, 높은 온정)과 권위주의적(높은 통제, 낮은 온정) 양육 행동을 가진 어머니가 허용적(낮은 통제, 높은 온정) 양육 행동을 가진 어머니에 비해 4시간 이하로 TV를 시청하는 자녀가 많다고 보고하였다. 영국의 5~6세 유아 954명을 조사한 연구에서도 부모의 통제적 양육 행동의 주중 유아의 TV 시청 시간의 감소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지만 애정적 양육 행동은 유아의 TV 시청 시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Jago, Wood, Zahra, Thompson, & Sebire, 2015). 많은 연구에서도 자녀가 능동적으로 TV 시청을 선택할 수 있는 시기에는 부모가 TV 시청 시간을 제한하거나 규칙을 정하는 식의 통제적 양육 행동이 영유아의 TV 시청 시간의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였다(Barr-Anderson et al., 2011; Birken et al., 2011; Bleakley, Jordan, & Hennessy, 2013; Vandewater, Park, Huang, & Wattella, 2005).

통제적 양육 행동이 강력하게 TV 시청 시간의 감소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도 있지만 반대의 경우도 존재한다. 일부 연구에서는 대규모의 표본수를 사용하였는데 부모의 시청 시간의 제한이나 규칙 등이 영유아의 TV 시청 시간의 감소를 예측하지 않았다(Hinkley, Salmon, Okely, & Crawford, 2013; Vandewater, Rideout, Wartella, Huang, Lee, & Shim, 2007). 더욱이 네덜란드의 5세 유아 2,026명을 조사한 Gubbels 외(2011)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좌식 행동(Sedentary Behavior)의 제한이 오히려 TV 시청 시간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부모 감독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TV 시청은 아니지만 미디어라는 큰 맥락에서 국내의 박소영·문혁준(2015)의 연구에서는 만 3~5세 유아 686명을 조사한 결과 스마트폰 일반 사용자 군에서 온정적 양육 행동과 한계 설정 양육 행동이 스마트폰 사용 감소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지만 위험 사용자 군에서 부모의 한계 설정 양육 행동이 유아의 스마트폰 사용 수준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에서 우리나라 영유아의 정서 및 행동 문제에 관련된 TV 시청 시간을 감소시키기 위해 부모가 어떠한 양육 행동을 취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한편, 국내에서는 외국과 달리 영유아의 TV 시청에 관한 연구는 최근까지 많은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영유아의 TV 시청과 관련해 수행된 연구로는 TV 시청 실태 및 지도 행동에 관한 연구(김민정·최지영, 2008; 김희정, 2014; 이경숙·정석진·박진아·전연진, 2014; 조안나·고영자, 2013; 황정혜·박인우, 2015), TV 시청과 교사의 인식(서영숙, 2005)가 있다. TV 시청과 발달에 관하여는 부모의 TV 시청 중재와 부정적 정서성, 인지 능력, 사회적 행동(문혁준, 2004), TV 시청과 언어

발달(배소영·정연구, 2015), 저소득 영유아의 TV/Video 시청과 대소근육 운동, 문제해결 등의 발달 특성(강한나·박혜원, 2013), TV 시청과 비만(반주영·최미자, 2011; 서영성·김대현·신동학, 2000; 임원정, 1999)에 관한 연구 등이 있을 뿐이다. 유일하게 최근 김수정(2016)이 부모의 양육행동, 유아의 미디어 사용 유형, 정서 및 행동 문제 간의 인과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에서는 온정적, 통제적 양육행동은 놀이 목적 미디어 사용시간의 감소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지만 교육 목적 미디어 사용 시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교육 목적 미디어 사용은 유아의 우울·불안과 공격성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놀이 목적 미디어 사용은 주의문제와 공격성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연구는 TV 외에도 인터넷, 스마트폰 등 여러 매체의 이용 시간을 함께 포함해서 분석하였기 때문에 이용 시기가 가장 빠르고 이용 빈도가 가장 높은 TV만을 구분하여 따로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발달 특성상 사회·정서 발달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유아기의 정서 및 행동 문제는 또래 관계 및 학교 적응 등의 이후의 성공적인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므로 다른 매체에 비해 시기적으로 가장 이르면서도 주중 이용시간이 많은 TV 시청이 정서 및 행동 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를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부모가 어떠한 양육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일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널 5~6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만 4~5세 유아를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행동, TV 시청 시간이 우울·불안, 주의문제,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보다 명확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유아의 성별, 월령, 부모 학력, 빈곤 여부가 통제변수로 포함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의 양육행동이 TV 시청 시간에 미치는 영향과 이러한 TV 시청 시간이 유아의 정서 및 행동 문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정서 및 행동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개입 방안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온정적/통제적 양육행동, TV 시청 시간, 유아의 정서 및 행동 문제(우울·불안, 공격성, 주의집중) 간 구조적 관계는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08년에 출생한 전국의 신생아 패널을 기반으로 매년마다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패널 5~6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시기는 대상 유아가 사회·정서 발달이 급격히 이루어지는 만 4~5세가 되는 시기로서 5차년도(2012년)에는 1,703가구, 6차년도(2013년)에는 1,662가구가 참여하였다. 5차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유아의 평균 월령은 51.89개월이었고, 51.1%(870명)가 남아, 48.9%(833명)가 여아였다. 부모 학력은 81.2%(1,375명)가 전문대졸 이상이었고, 18.8%(319명)가 고등학교 졸업 이하로 나타났다. 가구의 경제적 상황의 경우, 4.8%(82명)는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으로 빈곤하였지만, 95.2%(1,621명)는 빈곤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2. 측정도구

#### 가. 부모의 양육 행동: 온정적, 통제적 양육 행동: 만 4세

부모의 양육 행동은 조복희·이진숙·이홍숙·권희영(1999)이 Baumrind(1991)의 이론에 근거하여 개발한 척도를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참고하여 자체 제작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온정적 양육 행동’(예: 아이와 친밀한 시간을 갖는다,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고 표현할 수 있게 한다’) 6문항과 ‘통제적 양육행동’(예: 지켜야 할 규칙, 규율을 세우고 아이가 지키도록 한다, 가정교육을 위해 아이의 행동을 제한한다)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5점=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에게 온정적 양육 행동이나 통제적 양육 행동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온정적 양육 행동과 통제적 양육 행동에 대한 Cronbach's  $\alpha = .80$ (온정적),  $.86$ (통제적)이었다.

#### 나. TV 시청 시간: 만 4세

TV 시청 시간은 부모가 보고한 자녀의 TV, DVD, Video 등의 시청각 프로그램 시청 시간을 의미한다. 미디어 시청 시간은 “OO이가 하루(평일 기준으로)에 시청각 프

로그램 시청 시간(TV, DVD, Video 등)이 얼마나 되는지 30분 단위로 응답해 주십시오?”의 1문항으로 측정되었다.

#### 다. 우울·불안, 주의문제, 공격성: 만 5세

유아의 우울·불안, 주의문제, 공격성은 Achenbach와 Rescorla(2000)의 CBCL 1.5-5(Child Behavior Checklist preschool 1.5-5)를 김영아·이진·문수중·김유진·오경자(2009)가 우리나라 유아들에게 적합하도록 표준화한 유아행동평가척도(Child Behavior Checklist 1.5-5)를 사용하였다. 우울·불안, 주의문제, 공격성은 각각 8문항, 5문항, 19문항으로 구성되었는데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가끔 그렇거나 그런 편이다’, ‘자주 그런 일이 있거나 많이 그렇다’의 Likert식 3점 척도로 보호자가 응답하도록 하였다. 우울·불안, 주의문제, 공격성은 각각의 총점을 사용하였고, 총점이 높을수록 우울·불안, 주의문제, 공격성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울·불안, 주의문제, 공격성에 대한 Cronbach's  $\alpha = .72$ (우울·불안),  $.63$ (주의문제),  $.87$ (공격성)이었다.

#### 라. 성별, 월령, 부모 학력, 빈곤 여부: 만 4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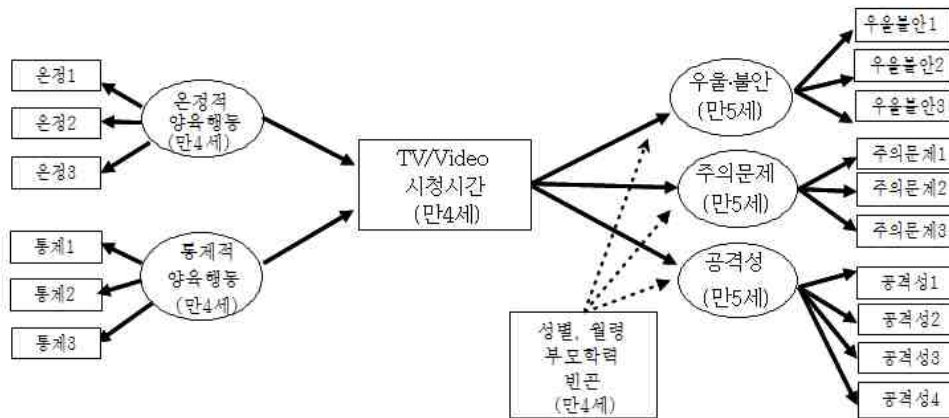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TV 시청 시간이 유아의 정서 및 행동 문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다 명확히 살펴보기 위해 유아의 성별, 월령, 부모 학력, 빈곤 여부를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이 중에서 성별은 남(=0)과 여(=1), 부모 학력은 대졸 이상(=1)과 고졸 이하(=0), 빈곤 여부는 빈곤 유(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1)과 빈곤 무(=0)로 더미화(Dummy)하여 사용하였다. 그리고 최종 분석시 유아의 성별, 월령, 부모 학력, 빈곤 변수가 우울불안, 주의문제, 공격성 각각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 3. 연구모형과 분석방법

본 연구는 SPSS 18.0과 Amos 21.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 및 주요 변수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문항간 내적 합치도 계수인 Cronbach's  $\alpha$ 를 산출하였다. 또한 다변인정규분포성에 대한 가정 여부의 검증을 위해 변인별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였다. 둘째, 측정모형 분석을 통해 적합도 지수를 검토한 후 결측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완전정보최대우도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FIML)을 적용한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때 단일 요인인 온정적 양육 행동, 통제적



양육행동, 우울·불안, 주의문제, 공격성 등은 측정변수의 여러 항목을 합산하거나 평균한 점수를 산출하여 잠재변수의 지표로 활용하는 항목 묶기(item parcel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chi^2$ , RMSEA, TLI, CFI를 통해 검증하였는데 TLI, CFI는 .90이상, RMSEA는 .05이하이면 좋은 적합도로 해석한다(Hu & Bentler, 1999).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그림 1 참조).



[그림 1] 연구모형

### III. 연구결과

#### 1.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주요 변수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치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1 참조).

본 연구에서 만 4세 유아의 TV 시청 시간은 평균적으로 1.36시간 시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경숙 외(2014)의 연구에서 전국의 만 0~3세 영유아 826명의 TV 시청 시간이 평균 2.6시간으로 나타난 결과보다 적었는데 만 4세 유아보다 만 0~3세 영유아의 TV 시청 시간이 더 많다는 이경숙 외(2014)의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 사용된 주요 변수의 왜도와 첨도를 살펴본 결과, 절대값이 각각 3과 10을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구조모형 검증을 위한 정규분포성의 기

본 가정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Kline,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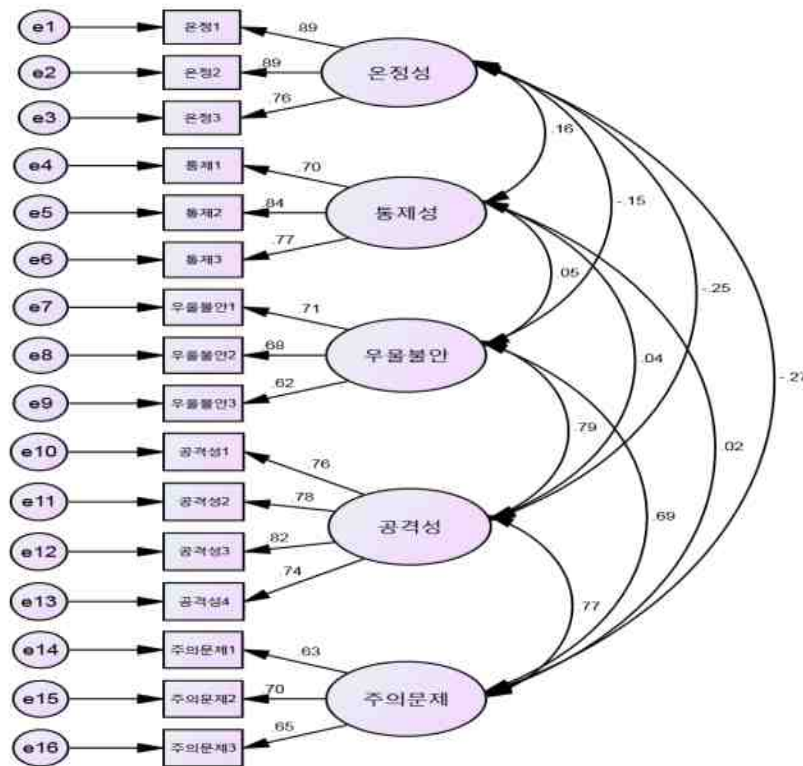
〈표 1〉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변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TV/Video 시청 시간(만 4세)	1.36	.87	.86	1.78
온정적 양육행동 (만 4세)				
온정1	3.74	.49	-.29	.35
온정2	3.69	.51	-.24	.17
온정3	3.38	.54	.01	.30
통제적 양육행동 (만 4세)				
통제1	3.28	.48	-.06	.23
통제2	3.20	.57	-.27	.29
통제3	3.35	.56	-.24	.33
우울·불안 (만 5세)				
우울·불안1	1.58	1.32	.61	-.11
우울·불안2	.80	.84	1.28	2.63
우울·불안3	.21	.49	2.69	9.21
주의문제 (만 5세)				
주의문제1	.20	.30	1.55	3.18
주의문제2	.21	.34	1.68	2.87
주의문제3	.29	.48	1.24	.28
공격성 (만 5세)				
공격성1	1.88	1.69	.60	-.35
공격성2	.92	1.19	1.44	1.92
공격성3	.99	1.30	1.44	1.74
공격성4	1.45	1.29	.93	.77
통제 변수 (만 4세)				
아동 성별(여=1)	.49	.50	-	-
아동 월령	51.89	1.24	-.12	-.41
부모 학력(대졸이상=1)	.81	.39	-	-
가구 빈곤(빈곤=1)	.05	.21	-	-

주. 아동성별, 부모학력, 가구 빈곤 등은 더미변수에 해당하므로 평균과 표준편차만 제시함.

## 2. 측정모형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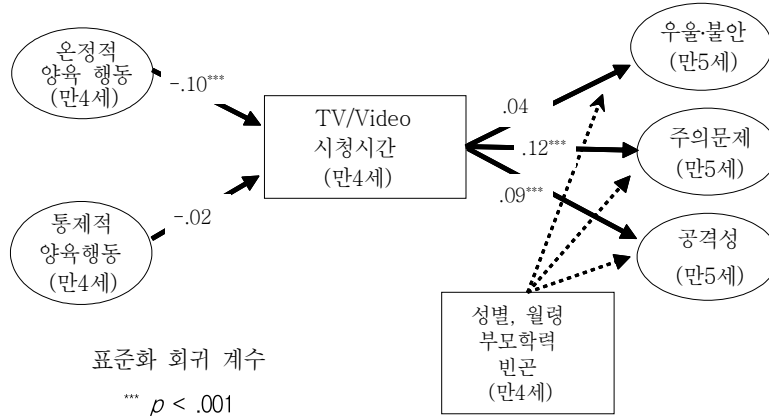
확인적 요인 분석을 통해 측정모형을 검증한 결과, 절대 적합도 지수에 해당하는  $\chi^2 = 426.84(df = 94, p < .001)$ 로  $\chi^2$  통계량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나타났지만 증분 적합도 지수에 해당하는  $TLI = .96, CFI = .97, RMSEA = .04$ 로 나타나 적합도 수치가 기준에 부합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모든 요인부하량은 .62~.89로 높은 부하량을 보이며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 참조). 잠재변수들 간 상관계수 또한 .02~.79로 변수들 간에 충분한 변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측정 변수들이 잠재변수를 적절히 구성하고 있고, 본 연구의 측정변수들이 잠재변수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그림 2] 측정모형

### 3. 구조모형 분석

[그림 1]에서 설정한 부모의 양육행동, TV 시청 시간, 정서 및 행동 문제의 영향 관계에 통제변수를 투입하여 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 결과에 집중하기 위해 통제변수의 분석 결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외하였다.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  $\chi^2 = 730.55$  ( $df = 173$ ,  $p < .001$ ), TLI = .94, CFI = .95, RMSEA = .04로 양호한 모형 적합도 지수를 보여 구조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모형의 추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그림 3, 표 2 참조).



[그림 3] 구조 모형

<표 2> 구조모형의 분석 결과

경로	B	$\beta$	S.E	C.R.
온정적 양육행동(만4세) → TV 시청시간(만4세)	-.20	-.10	.05	-3.87***
통제적 양육행동(만4세) → TV 시청시간(만4세)	-.03	-.02	.06	-.62
TV 시청시간(만4세) → 우울·불안(만5세)	.04	.04	.03	1.35
TV 시청시간(만4세) → 공격성(만5세)	.14	.09	.04	3.39***
TV 시청시간(만4세) → 주의문제(만5세)	.03	.12	.01	4.00***
유아 성별(만4세) → 우울·불안(만5세)	-.04	-.02	.06	-.71
유아 성별(만4세) → 공격성(만5세)	-.31	-.12	.07	-4.53***
유아 성별(만4세) → 주의문제(만5세)	-.06	-.16	.01	-5.24***
유아 월령(만4세) → 우울·불안(만5세)	-.03	-.00	.02	-.14
유아 월령(만4세) → 공격성(만5세)	.01	.01	.03	.33
유아 월령(만4세) → 주의문제(만5세)	-.00	-.00	.00	-.13
부모 학력(만4세) → 우울·불안(만5세)	.13	.05	.07	1.77
부모 학력(만4세) → 공격성(만5세)	-.13	-.04	.09	-1.47
부모 학력(만4세) → 주의문제(만5세)	-.06	-.12	.01	-3.87***
가구 빈곤(만4세) → 우울·불안(만5세)	-.08	-.02	.13	-.63
가구 빈곤(만4세) → 공격성(만5세)	-.06	-.01	.16	-.39
가구 빈곤(만4세) → 주의문제(만5세)	.02	.02	.03	.69

주. 주요 변수에 대한 결과에 집중하기 위해 통제변수에 대한 결과는 표에서만 제시하였음.

\*\*\*  $p < .001$

분석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의 온정적 양육 행동( $\beta = -.10$   $p < .001$ )은

유아의 TV 시청 시간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으나 통제적 양육행동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온정적 양육행동이 증가할수록 TV/비디오 시청 시간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TV/비디오 시청 시간은 유아의 주의문제( $\beta = .12, p < .001$ )와 공격성( $\beta = .09, p < .001$ )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지만 우울·불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TV/비디오 시청 시간이 증가할수록 유아의 주의문제와 공격성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 5~6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만 4~5세 유아의 부모의 양육 행동, TV시청 시간, 우울·불안, 주의문제, 공격성 간의 관계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한 결과와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만 4세 시기의 온정적 양육 행동이 증가할수록 TV 시청 시간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통제적 양육 행동은 TV 시청 시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부모의 온정과 통제 수준이 모두 높은 권위적 양육 행동이 TV를 포함한 미디어 시청 시간의 감소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한 Schary 외(2012)의 연구결과나 부모의 온정적 양육 행동과 한계 설정 양육 행동이 일반 유아의 스마트폰 사용 감소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한 박소영과 문혁준(2015)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부모의 TV 시청 시간 제한이나 규칙 등이 영유아의 TV 시청 시간 감소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한 Hinkley 외(2013)와 Vandewater 외(2007)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의 통제적 양육 행동이 유아의 TV 시청 시간의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Barr-Anderson et al., 2011; Birken et al., 2011; Bleakley et al., 2013; Vandewater et al., 2005)와 차이가 있었다. 영유아기 부모가 자녀의 방해 없이 자기 일을 하기 위해 TV를 별다른 의식 없이 ‘보모’처럼 활용하는 상황처럼 피동적으로 TV 시청을 선택하는 영유아기는 능동적으로 TV 시청을 선택하는 청소년기와는 달리 온정적 양육 행동이 통제적 양육행동보다 더 TV 시청 시간을 좌우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차이는 기존 선행연구와 달리 본 연구의 통제적 양육 행동 문항이 직접적으로 TV 시청 시간의 제한이나 규칙 등을 묻기 보다는 부모의 일반적인 양육 행동을 묻는

데서 비롯된 차이라고 생각된다. 더불어 청소년기와 같이 독립성이 높아지는 단계에서의 통제적 양육행동과 의존적인 영유아의 통제적 양육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 차이라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부모의 양육 행동을 TV 시청 시간을 직접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재구성하거나 아동청소년 발달단계를 좀 더 확장하여 결과를 재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통제적 양육행동과 유사한 문항인 부모의 한계 설정 양육행동이 증가할수록 유아의 스마트폰 위험 사용자군에서 사용이 증가했다는 박소영과 문혁준(2015)의 연구결과를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 유아의 TV 시청 시간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통제적 양육 행동보다는 부모의 지지, 애정, 반응적인 양육 행동을 의미하는 온정적인 양육 행동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것을 밝혔다는데 의의가 있다.

둘째, 만 4세 시기의 TV 시청 시간이 증가할수록 만 5세 시기의 유아의 공격성과 주의문제가 증가하였지만 우울·불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TV 노출이 네덜란드 영유아의 주의문제나 공격성 등 외현화 문제의 유병률과 지속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는 Verlinden 외(2012)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TV 시청 시간의 증가가 터키 유아의 불안, 공격성, 과잉행동-주의산만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한 Gülay(2011)의 연구결과나 5.5세 시기에 2시간 이상의 TV 시청이 미국 유아의 우울·불안, 공격성, 주의문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고 한 Mistry 외(2007)의 연구결과와는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내용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 놀이 목적 미디어 사용이 주의문제와 공격성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지만 우울·불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연구결과(김수정, 2016)와 유사하였다. 그리고 만 3세 이전의 폭력적이거나 비폭력적인 오락 목적의 TV 시청은 4~5세의 주의문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고 한 연구결과(Zimmerman & Christakis, 2007)나 폭력적 내용의 TV 시청이 유아의 언어적 공격성을 증가시켰다고 한 연구결과(Ostrov et al., 2007)와 부분적으로 유사하였다. 하지만 내용적인 측면을 고려한 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 데이터의 제약 상 TV 시청 시간만을 고려하였기에 이들 연구결과와 직접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TV 시청의 구체적인 내용적 측면을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와 비교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TV 시청 시간이 미국 유아의 우울·불안, 분노, 주의문제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고한 Rosen 외(2014)의 연구결과나 30-33개월 시기에 2시간 이상의 TV 시청 시간이 5.5세 시기의 우울·불안, 공격성, 주의문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한 Mistry 외(2007)의 연구결과와도 차이가 있었다. 24개월 영아의 TV 시청 시간이나 프로그램 내용이 34개월 시기의 주의문제나 공격성을 포함한

외현화 문제를 예측하지 않았다고 한 Verlinden 외(2012)의 연구결과와도 차이가 있었다. 또한 만 3세 이전의 교육적 내용의 TV 시청이나 프로그램의 내용과 상관없이 4~5세 시기의 TV 시청은 주의문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연구결과(Zimmerman, & Christakis, 2007)와도 차이가 있었다. 이는 본 연구가 기존 선행 연구(Mistry et al., 2007; Rosen et al., 2014; Verlinden et al., 2012; Zimmerman, & Christakis, 2007)와 조사 연령, 표본 수, 종단적 설계 등이나 TV 시청 이외에 휴대폰, 전자 게임 등 다양한 미디어를 함께 포함하여 분석을 하는 등 연구방법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라 여겨진다.

한편, 본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처음으로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여 TV 시청 시간과 유아의 우울·불안, 공격성, 주의문제 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본 연구로서 의의가 있다고 여겨진다. 특히 표준화 회귀계수와 유의도 측면에서 TV 시청 시간이 공격성과 주의문제에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므로 TV 시청 시간의 감소를 통해 공격성이나 주의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함의를 갖는다.

첫째, 우리나라에서 유아의 TV 시청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통제적 양육 행동보다 온정적 양육 행동이 효과적이다. 본 연구에서 부모의 온정적 양육 행동은 TV 시청 시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TV 시청 시간은 전반적으로 유아의 정서 및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들은 TV에서 시청하는 내용을 관찰하고 모방하면서 가상의 현실의 주인공이 되어 폭력적인 행동을 학습하거나 신체적 저하, 정서적 불안 등과 같은 부정적 영향을 받는다(조안나·고영자, 2013). 특히 TV를 포함한 미디어는 유아들에게 많은 호기심과 흥미를 주므로 부모의 적절한 중재와 지도를 통해 유아의 지나친 TV 시청 시간을 줄이고 TV 시청의 효과적 사용을 통해 유아의 정서 및 행동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유아교육기관의 정기적인 부모 교육을 통해 TV 시청에 대한 부모의 인식이나 가정에서의 자녀의 TV 시청 시간 등을 조사하고, TV 시청의 부정적인 영향이나 온정적 양육 행동이 자녀의 TV 시청 시간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라는 식의 적절한 중재 방안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여러 선행연구 결과(이정림 외, 2013; Carson, & Janssen, 2012; Kourlaba, Kondaki, Liarigkovinos, & Manios, 2009; Rideout, & Hamel, 2006; Thompson, Adair, & Bentley, 2013; Y'alçin, Tugrul, Naçar, Tuncer, & Yurdakök, 2002)에 의하면 유아의 TV 시청 시간은 부모의 TV 시청 시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므로 부모들이 가정에서 TV 시청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이러

한 내용을 포함하여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하여 TV 시청을 포함한 미디어 사용에 대한 양육 행동을 권고할 수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올바른 미디어 사용에 대한 매뉴얼도 학부모들에게 보급해야 할 것이다.

둘째, 유아의 정서 및 행동 문제의 예방을 위해서는 유아의 TV 시청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유아의 TV 시청은 주의문제와 공격성을 증가시키고 우울·불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서 가정 뿐만 아니라 유아가 가정 이외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유아교육기관에서의 TV 시청 시간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유아교육기관에서는 TV/Video/DVD 기능을 대신하여 빔프로젝터나 컴퓨터(노트북) 모니터를 사용하여 있어 유아들의 TV 시청 시간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유아교육 업체가 누리과정 교수자료를 주로 시청각 매체에 치중하여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고 있다는 것이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많은 유아교육기관의 수업이 예전에 비해 상당 부분이 시청각 매체에 의존하여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그림으로 보는 동화, 인형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누리과정 교수자료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사들도 넘쳐나고 있는 시청각 매체 속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그 수업을 가장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매체를 선택하여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 더불어 미디어 활용 관련 교사 교육도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유아교육기관에서 전이 시간이나 귀가전 통합보육 시간에 시청각 영상 활용을 가능한 줄일 수 있는 노력도 필요하다.

셋째, 공격성이 높거나 주의가 산만한 유아를 대상으로 한 TV 시청에 관한 집중적인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유아의 TV 시청 시간은 공격성과 주의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유아교육기관에서는 두드러지게 공격성이나 주의문제를 보이는 유아들의 조기발견과 더불어 부모 상담을 통해 TV를 포함한 미디어 시청 시간을 물어보고, 가정에서 TV 등의 시청각 영상이나 미디어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교사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유아들을 대상으로 TV를 포함한 집중적인 미디어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안을 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종속변수인 우울·불안, 공격성, 주의문제 등의 정서 및 행동 문제보다 부모의 양육행동, 유아의 TV 시청 시간 등이 먼저 발생했다는 시간적 우선성을 확보하여 만 4~5세까지 2개년도 종단자료를 사용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하지만 부모의 양육 행동과 유아의 TV 시청 시간의 관계가 장기적



으로 정서 및 행동 문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미디어 사용에 관한 대규모 종단 데이터가 구축된 후, 부모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TV 시청이 정서 및 행동 문제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널에서 데이터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유아의 TV 시청 시간만을 중심으로 분석을 하였기에 TV 시청의 영향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기 어려웠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TV 시청시간 이외에도 내용적인 측면이나 활용 유형 등을 함께 살펴본다면 미디어가 정서 및 행동 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보고에 의한 TV 시청 시간만이 조사되었고,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시청각 영상 시청 시간은 포함되지 못하였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유아교사를 통해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미디어 시청 시간을 함께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직접적인 TV 시청에 관한 부모 양육 행동이 아닌 일반적인 양육 행동을 묻는 문항을 사용하여 TV 시청 시간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따라서 직접적인 TV 시청과 관련한 부모 양육 행동 문항을 보완하여 분석한다면 보다 부모를 포함한 보호자에게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강한나·박혜원(2013). 저소득가정 영유아의 발달과 부모의 양육특성 및 하루 일과시간에 관한 연구.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1(6), 613-622.
- 김민정·최지영(2008). 유아의 전자미디어 사용 실태와 어머니의 인식에 관한 한국과 미국 비교 연구. *어린이미디어연구*, 7(1), 37-56.
- 김수정(2016). 부모의 양육행동, 미디어 사용 유형, 유아의 정서 및 행동 문제의 구조관계. *육아정책연구*, 10(1), 73-93.
- 김영아·이진·문수중·김유진·오경자(2009). 한국판 CBCL 1.5-5의 표준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8(1), 117-136.
- 김희정(2014). 유아교육기관 귀가 후 한국과 일본 유아의 일상생활에 관한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86, 209-238.
- 문혁준(2004).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TV/비디오 시청 중재와 아동발달특성. *아동학회지*, 25(1), 47-60.
- 박소영·문혁준(2015).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자군에 따른 사용실태 및 과다사용에 영

- 향을 미치는 연구. **인간발달연구**, 22(3), 25-45.
- 반주영·최미자(2011). 영양소 섭취량과 스크린 시간이 학령 전 아동의 비만에 미치는 영향. **동아시아생활과학회지**, 21(2), 185-193.
- 배소영·정연구(2015). 미디어 이용은 영유아 언어발달을 촉진하는가? **한국방송학보**, 29(6), 67-93.
- 서영성·김대현·신동학(2000). 학동전기 소아의 체중과 신체활동도와의 관계. **대한비만학회지**, 9(2), 146-152.
- 서영숙(2005). 영유아기관에서의 TV, 비디오 시청과 교사 인식. **아동학회지**, 26(6), 321-334.
- 이경숙·정석진·박진아·전연진(2014). 0-3세 영유아 영상매체 시청 및 부모의 영유아 자녀 영상매체 시청 지도 행동 실태 조사. **유아교육연구**, 34(2), 301-321.
- 이정림·도남희·오유정(2013). **영유아의 미디어 매체 노출 실태 및 보호대책**. 육아정책연구소.
- 임원정(1999). 소아 비만의 위험요소에 관한 연구 II. **정신신체의학**, 7(2), 213-225.
- 조복희·이진숙·이홍숙·권희경(1999). 한국 부모의 자녀 양육방식에서의 차원과 평가. **대한가정학회지**, 37(10), 123-133.
- 조안나·고영자(2013). 가정 내 전자 미디어 사용실태 및 어머니의 미디어 중재 유형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어린이미디어연구**, 12(1), 1-24.
- 황정혜·박인우(2015). 2-7세 영유아 자녀의 IPTV 동영상 시청 행태와 이용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 **정보교육학회논문지**, 19(4), 419-430.
- Achenbach, T. M., & Rescorla, L. A. (2000). *Manual for the ASEBA preschool forms and profiles*. Burlington, VT: University of Vermont, Research Center for Children, Youth, & Families.
- Barr-Anderson, D. J., Fulkerson, J. A., Smyth, M., Himes, J. H., Hannan, P. J., & Holy Rock, et al. (2011). Associations of American Indian children's screen-time behavior with parental television behavior, parental perceptions of children's screen time, and media-related resources in the home. *Preventing Chronic Disease*, 8(5), A105(1-10).
- Baumrind, D. (1991). The influence of parenting style on adolescent competencend substance us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1(1), 56-96.
- Birken, C. S., Maguire, J., Mekky, M., Manlhiot, C., Beck, C. E., Jacobson, S., et al. (2011). Parental factors associated with screen time in pre-school children in primary-care practice: A TARGet Kids! study. *Public Health Nutrition*, 14(12), 2134-2138.

- Bleakley, A., Jordan, A. B., & Hennessy, M. (2013).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and children's television viewing. *Pediatrics, 132*(2), e364-e371.
- Cain, N., & Gradisar, M. (2010). Electronic media use and sleep in school-aged children and adolescents: A review. *Sleep Medicine, 11*(8), 735-742.
- Carson, V., & Janssen, I. (2012). Associations between factors within the home setting and screen time among children aged 0-5 years: A cross-sectional study. *BMC Public Health, 12*(1), article 539.
- Cheng, S., Maeda, T., Yoichi, S., Yamagata, Z., Tomiwa, K., & Japan Children's Study Group (2010). Early television exposure and children's behavioral and social outcomes at age 30 months. *Journal of Epidemiology, 20*(Supplement 2), S482-S489.
- Christakis, D. A., Zimmerman, F. J., DiGiuseppe, D. L., & McCarty C. A. (2004). Early television exposure and subsequent attentional problems in children. *Pediatrics, 113*(4), 708-713.
- Jago, R., Davison, K. K., Thompson, J. L., Page, A. S., Brockman, R., & Fox, K. R. (2011). Parental sedentary restriction, maternal parenting style, and television viewing among 10-to 11-year-olds.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128*(3), e572-578.
- Jago, R., Wood, L., Zahra, J., Thompson, J. L., & Sebire, S. J. (2015). Parental control, nurturance, self-efficacy, and screen viewing among 5-to 6-year-old children: A cross-sectional mediation analysis to inform potential behavior change strategies. *Childhood Obesity, 11*(2), 139-147.
- Johnson, L., Chen, T. A., Hughes, S. O., & O'Connor, T. M. (2015). The association of parent's outcome expectations for child TV viewing with parenting practices and child TV viewing: An examination using path 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Nutrition and Physical Activity, 12*(1), 70-79.
- Gubbels, J. S., Kremers, S., Stafleu, A., de Vries, S. I., Goldbohm, R. A., Dagnelie, P. C., et al. (2011). Association between parenting practices and children's dietary intake, activity behavior and development of body mass index: The KOALA Birth Cohort Study. *International Journal Behavioral Nutrition and Physical Activity, 8*(1), 18-31.
- Gülay, H. (2011). The evalu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V-viewing habits and peer relations of preschool children. *International Journal of Academic Research, 3*(2), 922-930.

- Hinkley, T., Salmon, J., Okely, A. D., & Crawford, D. (2013). The correlates of preschoolers' compliance with screen recommendations exist across multiple domains. *Preventive Medicine, 57*(3), 212-219.
- Hu, L., & Bentler, P.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1-55.
- Kline, R. B. (2010).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3rd ed). NY: Guilford Press.
- Kourlaba, G., Kondaki, K., Liarigkovinos, T., & Manios, Y. (2009). Factors associated with television viewing time in toddlers and preschoolers in Greece: The GENESIS study. *Journal of Public Health, 31*(2), 222-230.
- Mistry, K. B., Minkovitz, C. S., Strobino, D. M., & Borzekowski, D. L. (2007). Children's television exposure and behavioral and social outcomes at 5.5 years: Does timing of exposure matter? *Pediatrics, 120*(4), 762-769.
- Ostrov, J. M., Gentile, D. A., & Crick, N. R. (2007). Media exposure, aggression and prosocial behavior during early childhood: A longitudinal study. *Social Development, 15*(4), 612-627.
- Ostrov, J. M., Gentile, D. A., & Mullins, A. D. (2013). Evaluating the effect of educational media exposure on aggression in early childhood.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34*(1), 38-44.
- Pagani, L. S., Fitzpatrick, C., Barnett, T. A., & Dubow, E. (2010). Prospective associations between early childhood television exposure and academic, psychosocial, and physical well-being by middle childhood. *Archives of Pediatrics and Adolescents Medicine, 164*(5), 425-431.
- Parkes, A., Sweeting, H., Wight, D., & Henderson, M. (2013). Do television and electronic games predict children's psychosocial adjustment? Longitudinal research using the UK millennium cohort study. *Archives of Disease in Childhood, 98*(5), 341-348.
- Rideout, V., & Hamel, E. (2006). *The media family: Electronic media in the lives of infants, toddlers, preschoolers and their parents*. Menlo Park, CA: Henry J. Kaiser Family Foundation.
- Rosen, L. D., Lim, A. F., Felt, J., Carrier, L. M., Cheever, N. A., & Lara-Ruiz, J. M. (2014). Media and technology use predicts ill-being among children, preteens and teenagers independent of the negative health impacts of exercise and eating habit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35*, 364-375.

- Schary, D. P., Cardinal, B. J., & Loprinzi, P. D. (2012). Parenting style associated with sedentary behaviour in preschool children.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182*(8), 1015-1026.
- Singer, M. I., Flannery, D. J., Guo, S., Miller, D., & Leibbrandt, S. (2004). Exposure to violence, parental monitoring, and television viewing as contributors to children's psychological trauma.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2*(5), 489-504.
- Singer, M. I., Slovak, K., Frierson, T., & York, P. (1998). Viewing preferences, symptoms of psychological trauma, and violent behaviors among children who watch television.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7*(10), 1041-1048.
- Stevens, T., & Mulsow, M. (2006). There is no meaningful relationship between television exposure and symptoms of attention-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Pediatrics, 117*(3), 665-672.
- Swing, E. L., Gentile, D. A., Anderson, C. A., & Walsh, D. A. (2010). Television and video game exposure and the development of attention problems. *Pediatrics, 126*(2), 214-221.
- Takeuchi, H., Taki, Y., Hashizume, H., Asano, K., Asano, M., Sassa, Y., et al., (2013). The impact of television viewing on brain structures: Cross-sectional longitudinal analyses. *Cerebral Cortex, 23*(5), 1188-1197.
- Thompson, A. L., Adair, L. S., & Bentley, M. E. (2013). Maternal characteristics and perception of temperament associated with infant TV exposure. *Pediatrics, 131*(2), e390-e397.
- Vandewater, E. A., Park, S. E., Huang, X., & Wartella, E. A. (2005). "No, you can't watch that": Parental rules and young children's media use.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8*(5), 608-623.
- Vandewater, E. A., Rideout, V. J., Wartella, E. A., Huang, X., Lee, J. H., & Shim, M. S. (2007). Digital childhood: Electronic media and technology use among infants, toddlers, and preschoolers. *Pediatrics, 119*(5), e1006-e1015.
- Verlinden, M., Tiemeier, H., Hudziak, J. J., Jaddoe, V. W., Raat, H., & Guxens, M., et al. (2012). Television view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in preschool children: The generation study. *Archives of Pediatrics and Adolescent Medicine, 166*(10), 919-925.
- Wilson, B. J. (2008). Media and children's aggression, fear, and altruism. *The Future of Children, 18*(1), 87-118.

Yalçın, S. S., Tugrul, B., Naçar, N., Tuncer, M., & Yurdakök, K. (2002). Factors that affect television viewing time in preschool and primary schoolchildren. *Pediatrics International*, *44*(6), 622-627.

Zimmerman, F. J., & Christakis, D. A. (2005). Children's television viewing and cognitive outcomes: A longitudinal analysis of national data. *Archives of Pediatrics and Adolescents Medicine*, *159*(7), 619-625.

Zimmerman, F. J., & Christakis, D. A. (2007). Associations between content types of early media exposure and subsequent attentional problems. *Pediatrics*, *120*(5), 986-992.

·논문접수 8월 1일 / 수정본 접수 9월 7일 / 게재 승인 9월 26일

·교신저자: 정익중,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메일 [ichung@ewha.ac.kr](mailto:ichung@ewha.ac.kr)

## Abstract

#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Parental Warmth/control, TV Viewing Time and Behavioral Problems in Preschoolers

Soo Jung Kim and Ick-Joong Ch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structural relations among parenting styles(warmth, control), TV(DVD/Video) viewing time, and preschooler's behavior problems. We analyzed the data from the waves 5 and 6 in of Korean Children Panel Study(KCPS), including 1,703 and 1,662 families with 4~5 year-old children respectivel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as used for data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In 4-year-old parental warmth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shorter media TV viewing time. However, parental control had insignificant impacts on TV viewing time. Second, TV viewing time of 4-year-old was associated with increased aggression and attention problems of 5-year-old, but not anxiety/depression. Based on these results, we highlighted that warmth parenting style is more effective than control parenting style in order to reduce TV viewing time. We also suggested that in order to prevent behavioral problems of preschooler, TV viewing time should be reduced, and focused prevention education on TV viewing are needed to decrease attention problems and aggression.

Key words: parental warmth/control, TV(DVD/Video) viewing time, depression/anxiety, attention problems, aggression,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